

□ 안정적 회복! 중국 1분기 대외무역 전년비 29.2% 증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1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29.2% 증가한 8조 4700억 위안(약 1440조원)으로 안정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리쿠이원(李魁文) 해관총서 대변인 겸 통계분석사(司) 사장은 당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중국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경제·사회 발전 효과가 뚜렷해지며 대외무역 수출입에서 좋은 성과를 실현했다면서 약 8조 5천억 위안이라는 큰 범위에서 수출은 전년 대비 38.7% 늘어난 4조 6100억 위안, 수입은 19.3% 증가한 3조 8600억 위안, 무역 흑자는 690.6% 급증한 7592억 9천만 위안을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다.(新华社, 2021.4.14.)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中 서플라이 체인의 대응은?

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매섭다. 중국 국내시장에서도 에너지·금속·농산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리·알루미늄·철강재 등 제조업 분야 원자재 선물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0% 넘는 상승폭을 보였고 현물 가격도 두자릿 수 이상 증가했다.

각 산업에도 줄줄이 영향이 전해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바로 가전업체다. 중국의 한 선두 가전기업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60%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특히 구리·알루미늄·철강재·플라스틱 등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업체의 충격도 만만치 않다. 허베이(河北)성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철제 코일, 폴리염화비닐(PVC)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20~30% 가까이 올라 생산원가 부담이 커졌지만 제품 가격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원자재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세 가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추세와 연관이 있다. 지난해 3월 유럽, 미국 등 각국은 수차례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통화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했다.

둘째, 원자재 공급이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 광산의 조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구리·철광석 가격이 크게 뛰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다. 올해 각국이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 회복에 대해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상품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한 원자재 무역 관련 종사자는 중국이 탄소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함에 따라 구리·알루미늄·철강 등의 생산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중국 제조업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수요도 덩달아 늘면서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제조업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전략을 조정하고 구매 원가를 통제하며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는 등 여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조명업체 오플(OPPLE)의 구매담당자는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중소기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조업 기업의 경우 하나의 공급망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업·다운 스트림 기업들이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거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덜고 함께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新华社, 2021.4.13.)